



장관, 미(美) 신정부 출범 직후 첫 현장행보 무역협회 방문

-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민관 원팀 대응 강조
-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면담 및 KITA 세계무역포럼 축하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21(화)에 곧바로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민관합동의 원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오늘 면담이 이루어졌다.

안덕근 장관은 “작년 한 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의 굳건함을 보여 주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수출원팀 코리아”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난해 말 국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협회가 무역업계를 대표하여 대외 신인도 관리, 기업 애로 해소 등에 힘써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협회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안 장관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 기저 효과 등에 따라 올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2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회가 무역·통상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한 팀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한편, 주요국의 해외수입규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협회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업계를 대표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외 신인도 관리와 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준비 중인 비상수출대책에도 협회가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협회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부와의 협력 강화하는 한편, 미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보와 전략적 인사이트를 기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에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초불확실성 시대, 한국 무역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된 세계무역포럼(무역협회 주관)에 참석하였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우리 무역이 당면한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미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포함한 대미 소통체계를 통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서기관	김윤희 (044-203-4021)
			사무관	권승기 (044-203-4023)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